

# ‘아시아 도시 문화 · 건축 도서 한자리에’

## ACC, 다음 달 27일까지 도서관 이벤트 홀 ‘인생에서~’ 등 삶의 지표 담은 책도 추천

‘아시아의 도시 문화’ 도서를 한 자리에서 훑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ACC 도서관 도서추천서비스(북큐레이션) 새해 첫 주제를 ‘아시아 도시와 건축’으로 정하고 아시아 도시와 건축 전반을 다룬 문화예술 도서 50여 권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ACC는 다음달 27일까지 도서관 이벤트 홀에서 관련 책을 전시키로 하고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아시아 도시 이야기’와 ‘도시로 보는 이슬람 문화’는 도시가 품은 역사와 문화로 아시아인의 삶이 어떻게 변해왔으며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전망한다.

‘서울 어바니즘’, ‘도쿄 인문기행’, ‘뭄바이: 사물을 통해 본 도시(Mumbai a City through Objects)’는 아시아 대표 도시가 전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도시 건축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현대건축 100년’과 도시의 풍경 속에서 일상을 마주하는

‘도시의 36가지 표정’도 추천도서로 올랐다.

새해를 맞이해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책 40여 권도 독자를 기다린다.

76세에 그림을 시작해 100세에 세계적 화가로 유명해지면서 모든 이들을 감동시킨 모리스 할머니의 그림 에세이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시다’를 자신 있게 내놓았다. 이밖에 ‘약간의 거리를 둔다’와 ‘12가지 인생의 법칙’ 등은 동서고금의 메시지를 건넨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아시아 도시와 건축을 주제로 선별된 책 속에서 아시아 도시가 품은 이야기로 도시의 미래를 그리고, 삶의 다양한 방향을 담은 양



서에서 가슴 뛰게 하는 삶의 지표를 만나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욱 기자

## ‘조선을 만난 시간’ 재현 배우 모집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내달 2일까지 접수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내달 2일까지 ‘조선을 만난 시간(이하 조만간) 프로젝트’에 참여할 배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재 재갯거리에서 2019년부터 시작한 조만간 프로젝트는 강진을 대표하는 다산 정약용 등 역사적 인물을 모티브로 만든 주민 참여형 문화 관광 콘텐츠이다.

사재를 배경으로 마당극과 재갯거리 곳곳에 재현 꼭지 코너를 운영할 계획으로, 강진군민이 직접 배우로 나서 관객을 맞이하게 된다.

만 14세 이상 강진군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강진군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이력서를 작성해 이메일(gjct7999@naver.com) 혹은 문화관광재단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서류모집 결과 공고 후 오디션을 거쳐 공연배우와 재현배우를 최종 선발한다. 합격자는 ‘조만간 프로젝트 아카데미’를 통해 연기·안무 교육과 문화 해설 및 고객 서비스 교육 등을 받게 된다.

/강진=한홍수 기자

## 영암 ‘학산도서관’ 개관 주민 문화향유 확대 기대

영암군은 지난 26일 학산도서관의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은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학산도서관을 건립하여 서부권(서호·학산·미암) 거점 공공도서관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등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복합문화 소통공간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학산도서관은 연면적 829.65㎡ 규모로 건축되어 1층은 어린이 자료실, 독서토론폰방, 북카페로, 2층은 일반자료실, 보존서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9,400여 권의 장서와 오디오북 161종 등 다양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1층 어린이 자료실은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시설로 이용자들의 편의에 맞게 책 열람이 가능하도록 세 공간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독서토론폰방은 분기별 특강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목적실로 사용될 계획이며, 북카페는 지역 주민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소통공간으로 오디오북 및 정기간행물 등이 비치되어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층 일반자료실은 도서 열람 및 학습 공간으로 사용되며, 이용자용 PC 및 프린터도 비치되어 있어 자료 검색 및 출력, 복사가 가능한 시설을 갖췄다. /영암=김형두 기자

## 순천대 인문학술원, 자료총서 제5권 ‘전쟁과 노동 자료집’ 출판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은 최근 일제 말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일제의 동원 정책과 이에 대한 식민지 사회의 반응을 담은 전쟁사 자료 총서 제5권 ‘전쟁과 노동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전쟁 수행을 위해 고안된 동원체제의 규정과 이에 대한 식민지 사회의 반응을 알 수 있는 자료 41건을 선별해 수록했다.

57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자료집은 순천대 인문학술원이 수행하는 교육부 대학중점연구소(인문사회연구소) 사업의 ‘아시아태평양전쟁



과 한국전쟁의 역사 문화·효과 연구과제의 아홉 번째 결과물이다. 지난 3년간 진행해온 2단계 주제인 ‘전시체제와 일상’의 연구 성과물이다. 순천대 강성호 인문학술원장은

“이번 자료집에서는 중일전쟁의 발발 이후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조선 식민지 사회가 경험했던 일제의 전시 동원에 관해 알 수 있는 자료를 소개했다”라며, “자료 총서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아시아-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순천대 인문학술원은 지난해 8월 전쟁사 연구총서 4권 ‘노동과 삶의 통제’를 발간했으며, 곧 연구총서 5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순천=조순익 기자

## “더욱 풍성해진 ACC 창·제작 지원 이용 하세요”

‘ACC 문화공작소’ 연말까지 운영... 조형 제작 지원·매체예술 시연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창·제작 지원 시설을 확대, 개편 운영키로 해 현장 실습 교육의 질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이강현)이 창·제작 지원 시설 개방·공유 프로그램인 ‘ACC 문화공작소’를 오는 2월부터 연중 상시로 문화창조원 창·제작 스튜디오에서 진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ACT 열린 창작소’ 시범사업 참가자 만족도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미흡한 점을 보

완하고 서비스 제공 방법 등을 넓혔다.

올해 ‘ACC 문화공작소’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일반인 제작지원’과 전문 분야 교육생의 현장 교육을 위한 ‘전문인 기술지원’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운영한다.

‘일반인 제작지원’은 레이저 절단기, 3D 프린터 등 조형 제작을 위한 장비와 기술을 지원한다. 미디어 예술 작업을 하는 대학생과 청년 작가가 매체

예술(미디어아트) 콘텐츠 시연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뛰어난 프로젝트와 공간 이용도 돕는다.

이밖에 ACC 보유 장비의 제작과 지원 상담 등 담당자와 1대1 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

‘전문인 기술지원’은 조형 예술과 다면 매체예술 분야의 콘텐츠 제작·운영을 위한 현장 맞춤형 실습 프로그램이다. 이론 교육을 마친 전문 교육생은 창·제작 스튜디오에서 장비 운용 기술과 제작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영욱 기자

## ‘도서관 첫걸음 독서운동’ 참여자 모집

광양평생교육관, 내달 1일부터 신청

광양평생교육관은 어려서부터 지속적인 독서 습관 형성을 돕고자 ‘도서관 첫걸음(라이브러리 스타트 독서운동)’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라남도교육청 제7차 라이브러리 스타트 북을 활용하여 단계별 목록집 배부, 다독자 선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라이브러리 스타트는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사서와 학교 도서관 사서교사들이 직접 선정한 단계별 권장도서 목록으로 유아부터 중학생까지 도서관 첫 발자국을 응원하는 사업이다. 총 300권의 권장 도서목록을 제공하며, 지난 6차부터 4단계가 추가되어 그 대상이 중학생까지 확대되었다.

현재 자료열람실 내 별도로 마련된 ‘라이브러리 스타트’ 서가에 권장도서들을 비치해두어 쉽게 찾고 빌려 갈 수 있다. 아울러 12월중 단계별 다독자 선정도 예정되어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광양 관내 학생들은 오는 2월 1일부터 자료열람실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단계별 권장도서를 읽고 감상평을 작성하면 담당 사서에게 확인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정미라 관장은 “자녀에게 읽힐 양질의 도서 선정이 어려웠던 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목적이다. 도서관 첫걸음 독서운동 참여가 학생들의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에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 목포시립도서관, 겨울방학 체험프로그램 운영

‘책 한권의 깊이: 몬스터 차일드’ 독후 활동 참가자 모집

목포시립도서관이 어린이를 위한 겨울방학 체험프로그램 ‘책 한권의 깊이: 몬스터 차일드’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고 29일 밝혔다.

초등학교 3~6학년 대상으로 진행하는 ‘책 한권의 깊이: 몬스터 차일드’는 ‘몬스터 차일드’를 함께 읽고 다양한 독후 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책 한권을 깊게 이해하며 생각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참가 신청은 목포시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61-278-3320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목포시립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지난 해 12월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책놀이 연극 ▲그림책으로 만나는 작가 이야기 ▲어린이 공예 ▲한눈에 속 한국사 등 독서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 중으로 오는 2월 10일까지 진행한다. /목포=김근호 기자

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61-278-3320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목포시립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지난 해 12월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책놀이 연극 ▲그림책으로 만나는 작가 이야기 ▲어린이 공예 ▲한눈에 속 한국사 등 독서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 중으로 오는 2월 10일까지 진행한다. /목포=김근호 기자

# 전국 3만6천명 여성 최고의 직업

아모레 카운셀러

※ 문의만 하여도 선물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여성 화장품 판매 1위

대한민국 기초 화장품 1위 셀화수

대한민국 색조 화장품 1위 헤라

제약에서 만든 건강식품

1. 여성으로 가장 잘 할수 있고 가장 쉬운 사업입니다. 판매와 재판매가 손쉽고 고객과 본인이 함께 이해지는 일석이조!!
2.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브랜드 입니다. 설명이 필요없이 판매가 쉬운 대한민국 명품 화장품 입니다.
3. 기본수당 + 영업판매수당 + 각종 판촉지원 + 교육지원 + 해외여행 기회..... 등

아모레 신안특약점 수퍼마스터 송광자

## 010-3634-5083

## 062-522-2352 / 2353